

오피니언

테마칼럼

- 공간과 생활, 문학의 향기, 디자인 세상, 과학과 생명

불온한 것들

시설

'지방' 반발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할 건가



이기호

“

모 아니면 도, 우리가 사회를, 한 사람을,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또 있을까. 진정 불온하고 위험한 일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은유나 상징이 거부당하는 사회,

”

이 짝은 도사도 없다. 모두 각 시대에 '불온'의 딱지를 붙이고, 저항정신을 극단으로 몰아붙인 서적들이다...

한데, 국방부에선 그런 서적들은 허용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대목은 책을 읽는 사람들의 해석의 무게중심일 것이다.

오호라 현 체제 '자본주의'에 경고를 보냄으로써, '자본주의'를 더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들자는 저자의 숨은 의도가 들어 있는, 그야말로 '친 자본적' 성격의 도서이다...

통용되고 있지 않다는 뜻.

사실, 군대란 조직에게 은유나 상징만큼 두려운 존재도 없다. 무조건적인 복종과 명령에 은유나 상징이 깨어지면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군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군대의 용어, 즉 '교두보'나 '육박'이나 '전진기지' 같은 어휘들을 신문이나 책들에서 고스란히 받아쓰고 있다...

〈소설가·광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방'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은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제품 외면하는 대형 할인점 각성해야

광주·전남에 진출한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들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대형 할인점들의 자체 브랜드 도입은 유통업체의 새로운 트렌드다. 홈플러스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늘려 1만1천개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할인점들이 자체 브랜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업체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사회의 상생이다. 대형 할인점들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늘리고 있지만 광주·전남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한다.

대형 할인점의 잇따른 진출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곳은 지역의 유통업체들이다. 재래시장은 고사 위기에 몰려가고 토박이 할인업체들은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대형 할인점들은 상품의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업체들이 지역 중소기업 구매에 인식해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다.

의로 칼럼

김병희



똥똥이는 장황한 설명으로 환자를 헛갈리게 만들고, 명의의 증세를 꼭 집어서 말해 환자가 '아하'하고 병원을 나서게 한다.

떠오른다. 그 아이를 주위에는 항상 걱정 어린 눈빛의 부모들이 있었다. 아픈 아이가 건강하게 됐을 때 기쁨을 함께 느꼈고, 심한 병이 발견돼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할 때는 걱정을 나누기도 했다.

훌륭한 의사란?

하는 의사,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의사, 솔직하고 겸손한 의사, 환자들이 '명의'를 설명할 때 흔하느는 말이다.

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런 때마다 "다음에는 진료가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해야지, 슬기롭게 대처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반면 의사가 보는 좋은 의사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타병원에서 보낸 환자를 잘 챙겨주는 사람을 일컫는다. 또 "왜 이제 왔느냐", "이런 약은 옛날이나 쓰던 약인데", "어디서 이따위 진료를 받았느냐" 등의 협박을 하지 않는 의사, 자기가 최고인 듯, 자신만이 최신지식을 아는 양 행동하지 않는 겸손한 의사가 환자도 잘 보고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의사는 프рода. 환자와 보호자를 대할 때 늘 웃는 얼굴, 상냥함으로 대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의사도 사람 인리라 환자가 많아서 또는 없어서 지치고, 개인적으로 괴로운 일이 생기기기도 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지식, 경험, 친절등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가져야할 것이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감정 조절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해맑은 우리 아이들이 다시 건강하게 뛰놀았으면 하는 생각은 소아청소년과의 사리된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오늘 도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본다.

〈미래이동병원 원장〉

기고

박사규



자연이란 참으로 오묘하고 이상아릇한 것이다. 그렇게 야생마처럼 식을 줄 모르고 덤벼들던 더위가 처서라는 절기가 지나더니만 언제 그랬냐는 듯 한풀 꺾여 아침저녁 문 틈새로 들끓는 찬 바람에 얇은 이부자리를 찾는다.

집 근처를 멀리 떠나 텅 빈 광주 국군병원의 넓다란 연병장엔 잠조만 무성하다. 폭염과 여름밤에 쏟아진 폭우 속에서 맹풍이 그렇게 울어대더니만 이제 맹풍이는 온데간데 없고 세월을 잃어버린 듯 붉은 코스모스 몇 송이가 허너바람에 한물거려난다. 아침저녁 울어대는

벌초하려 가는데 어느 누가 스쳐간 발자국이 선명하다. 아니 추석이 아직 보모르고 덤벼들던 더위가 처서라는 절기가 지나더니만 언제 그랬냐는 듯 한풀 꺾여 아침저녁 문 틈새로 들끓는 찬 바람에 얇은 이부자리를 찾는다.

계절에 쫓기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수풀도 꽃도 마찬가지로. 한 송이라도 봄 여름 가을에 지고 피는 꽃 종류는 셀 수 없이 다양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

벌초 길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어릴 때 들은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포근하다.

그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추석이 보름 남짓 남았으니 우리의 빨리빨리 성질도 이때쯤이면 더욱 더 빨라진다. 예나 지금이나 이맘 때면 방방곡곡에서 어김없이 행하는 것이 조상의 묘를 돌보고 벌초하는 일이다.

늪내 제철을 알아차리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들꽃, 자연을 아우르는 엄연한 질서에 절로 고개 숙여질 뿐이다. 더불어 그런 자연을 인간인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지 않나 반성하면서 자연의 조화로운 과 요묘한 이치를 본받아 조상을 숭모하고 조상의 얼과 발자취를 더듬는 벌초는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해본다.

오늘 벌초를 내가 먼저 하지 못한 미안함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무성에도 자란 숲 속 길을 헤치고 내려오면서 일찍 물어버린 부모님을 그린다. 살아생전에 못 다한 효를 이제야 누우치며 내년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살며 각각의 삶에 열중하고 있는 식물들을 거느리고 때이 초여름에 일찍 찾아와 벌초를 하리라고 굳게 다짐한다.

〈광주 극락초등학교 교장〉

농촌·도시 아이들 함께 공부하는 방학교실 개설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어교육 열풍으로 사교육 시장이 들끓었다. 하지만 농촌은 사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니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고 특히 방학 때는 영어와 친해지는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지자체로부터 담당 교사초등학교는 방과후 교육을 특성화한 뒤 학기중 수업과 짐목을 시켰더니 광주에서 7명의 아이들이 시골 학교로 전학왔다고 한다.

도시와 농촌 아이들이 함께 섞여 공부함으로써 교육효과도 크게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학교실이 모든 농촌 학교에서 열렸으면 좋겠다.

▲김규근·광주시 서구 송촌동

도서관 줌도독 예방 CCTV 설치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관리를 소홀히 한 나의 실수도 있었지만 도서관 주변에 항상 줌도독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듯하다.

러나 수험표가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려 토이를 보지 못했다. 이전의 토이 잠수를 제출하다 취업에 실패했다고 한다. 이 억울한 일을 어디에 하소연할까.

도서관 입구에는 오래전부터 '도난 주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고 그 옆에는 항상 '물건을 돌려달라'는 메모가 예처럼 붙어 있다.

도서관은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 CCTV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개인이 소지품을 관리할 잘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언젠가 '지갑 속에 든 수험표만이라도 돌려달라'는 글이 붙어있는 것을 봤다. 그 학생은 접수한 토이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입사시험에 제출하려 했다는 것이다.

▲배근아·광주시 동구 소재동

無等鼓

전 국민을 열광시켰던 2008 베이징올림픽이 끝났지만 감흥은 이어지고 있다. 올림픽 출전 사상 최다인 금메달 13개를 따내 종합 7위와, 아시아에서 일본을 누르고 2위에 오른 대한민국 선수단은 귀국 후 국민적 열광을 받고 있다.

금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성과를 따질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조사특위에는 태만하게 경기에 임한 선수들에 대한 처벌권도 부여돼 올림픽 때 책임을 피했던 선수는 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개선한 선수단은 정부와 소속사, 고향에서 잇따라 열어서는 환영행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마음주 대만 총통은 한국의 사례를 꼽으며 자국 선수단을 나무랐다. 마 총통은 지난 26일 귀국한 선수단을 만나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한국을 보라. (이를 따라 잡기 위해) 우리는 먼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그 후



더 큰 효행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한국을 보라. (이를 따라 잡기 위해) 우리는 먼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벌초를 내가 먼저 하지 못한 미안함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무성에도 자란 숲 속 길을 헤치고 내려오면서 일찍 물어버린 부모님을 그린다.

베이징에서 박태환이 따낸 수영 금메달로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가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이지만, 육상 등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종목별 불균형은 여전히 있다.

마음주 대만 총통은 한국의 사례를 꼽으며 자국 선수단을 나무랐다.

특히 야구에서는 최야 체인 중국에도 뒤져 5위에 머물렀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우리와는 반대로 성적이 나쁜 국가는 초상집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동메달 1개만을 목에 걸고 귀국한 이집트 선수단은 성적 부진 때문에 정부의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베트남과 안치를 벌였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우리와는 반대로 성적이 나쁜 국가는 초상집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동메달 1개만을 목에 걸고 귀국한 이집트 선수단은 성적 부진 때문에 정부의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최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distribution areas.